

2019 회계연도 연차보고서

WORLD BANK GROUP
KOREA OFFICE



WORLD BANK GROUP
KOREA OFFICE

2019 회계연도 연차보고서

WORLD BANK GROUP KOREA OFFICE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목차

요약	04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2기	07
주요 사항	08
혁신과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09
한국사무소 CMU(Country Management Unit) 주요 활동	12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부서 활동 내용	2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혁신	22
금융 · 경쟁력 · 혁신	31
글로벌 지식협력 신탁기금	35
취약 · 분쟁 · 폭력	38
교육	40
한국 민간부문의 신흥시장 진출 기회 지원	43
국제금융공사	44
국제투자보증기구	51
연락처	53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WBG) 한국사무소 2019 회계연도¹ 연차 보고서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한국사무소가 1기에서 2기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매니저들이 합류하였고, 중점 부문인 혁신과 기술에 관한 활동도 확대하였습니다. 한국사무소 지원을 위해 2018년 4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체결한 2기 협정에 따라 정부 지원은 2019-2021년 회계연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한국사무소 1기 협정은 사무소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2기에서는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사무소의 규모와 운영 프로그램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세계은행그룹은 소훈섭 세계은행 북경사무소 중국·몽골 경제정책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리더를 신임 한국사무소 소장(Special Representative/Country Manager)으로 임명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는 마틴 레이저(Martin Raiser) 브라질 담당 국장이 세계은행 중국·한국·몽골 담당 국장(Country Director for China and Mongolia, and Director for Korea)으로, 2019년 11월에는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소속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에 류지연 대표(Resident Representative)가 새롭게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에 두 팀이 새로 합류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의 에너지(Energy and Extractives, EEX GP²), 환경(Environment, Natural Resources and Blue Economy, ENB GP), 도시·토지개발국(Urban, Resilience and Land, URL GP) 전문가들로 구성된 녹색성장혁신팀(Green Growth Innovation)과 분쟁취약국(Fragility, Conflict, Violence, FCV) 부서 직원 두 명으로 구성된 FCV 팀입니다. 두 팀은 기존 한국사무소의 금융·경쟁력·혁신국(Finance,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CI GP), 개발경제 지식·전략(Development Economics Knowledge and Strategy, DECKS) 팀과 함께 한국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두 팀이 새로 합류하면서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는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사무소는 여러차례 내·외부 논의 및 자문을 거쳐 사무소의 역량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과 기술'에 집중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한국사무소는 (1)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혁신과 기술, (2) 녹색성장을 위한 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직원 확충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여름까지는 신규 프로그램을 추진할 5명의 직원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한국사무소는 혁신·기술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혁신·기술 사례를 소개하고, 해당 주제에 관한 글로벌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세미나 시리즈를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데이터 플랫폼, 미래 고용을 위한 역량개발, 디지털 농업기술, FCV 국가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등을 주제로 브라운백 런치(BBL) 세미나를 총 9회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혁신·기술 사례를 다루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개발도상국의 기술·혁신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파트너십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1 세계은행그룹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2 GP = Global Practice

2019년 11월에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제1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Global Innovative Growth Forum)을 개최하였습니다.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과 빅토리아 콰과(Victoria Kwakwa)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지역국 부총재(Vice President for East Asia and Pacific)를 비롯하여 총 400여명이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참석하였습니다. 한국사무소는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을 대표적 연례 행사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2020년 2월에는 세계은행 워싱턴 DC 소재 본부에서 세계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주관하는 한국혁신주간(Korea-WBG Partnership Week for Innovation and Technology, Korea Innovation Week)을 개최하여 개발도상국의 기술 및 혁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2019년 한국사무소의 신규 녹색성장혁신팀(Green Growth Innovation team)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녹색성장 아젠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및 연구 프로그램을 신속히 개발하였습니다. 동 프로그램은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orea Green Growth Trust Fund, KGGTF) 팀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은 한국이 세계은행에 출연하는 신탁기금 중 하나로, 세계은행 본부의 해당 기금팀에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은 한국사무소 녹색성장혁신팀의 활동에 부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사무소의 녹색성장혁신팀은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에서 지원 받는 사업과 각 소속 에너지, 환경, 도시·토지개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 활동과 각 국(GP)의 프로그램은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사무소 녹색성장혁신팀은 다양한 투자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필리핀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몽골과 베트남 청정 효율 에너지 제고, 캄보디아 고형 폐기물 관리, 필리핀 기후변화 회복력(climate change resilience) 사업, 베트남과 필리핀 대규모 토지행정 차관사업, 베트남·몽골·필리핀 지형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주요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개도국과 함께 지식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초소형 전력망 구축 사업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아프리카 국가 전력망 현대화 계획·구축·운영을 위해서는 한국전력거래소와 협력하였고, 캄보디아 고형 폐기물 관리 프로젝트 및 베트남 ICT 기반 토지 행정 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각각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사무소의 FCI팀이 운영하는 서울금융자문센터(Seoul Center for Financial Sector Development)는 한국의 금융부문 발전 경험과 전문성, 30여개 한국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금융 안정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는 활동들을 이어갔습니다. 서울금융자문센터는 또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금융부문 발전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직접 제공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지난 1년간 캄보디아의 금융부문 제도개선, 몽골의 도산제도 개선, 필리핀의 농업금융 정책 재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only banks)을 비롯한 한국의 핀테크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도 준비 중입니다. 말레이시아와 오스트리아 사무소의 FCI팀들과의 협업 하에 부실채권 정리 관련 아시아 지역 국제회의를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센터는 동아시아 지역 금융부문 발전을 지원하는 한국 신탁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탁기금은 사업(다년도 사업) 건당 평균 8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사업자금을 세계은행에 공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무소 DECKS팀은 글로벌 지식협력 신탁기금(Korea Program for Operational Knowledge, KPOK)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POK은 세계은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파트너 국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발협력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실무지식, 교훈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 국가에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발전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온라인 및 집합 교육과정과 사례 연구를 융합한 다양한 역량 강화 활동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KPOK 팀은 다양한 분야의 한국 파트너기관 및 세계은행 GP들과 협력하여 고형 폐기물 관리, 디지털 농업기술, 도로교통안전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딜리버리 이니셔티브(Global Delivery Initiative, GDI)의 일환으로 공간정보관리, 교통, 열린 정부 등 한국의 혁신과 기술이 돋보이는 개발 경험에 대한 일련의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에 한국사무소에 새로 합류한 FCV 팀은 FCV 국가에 대한 연구와 혁신적 정책과 기술 반영한 사업 지원, 부, 기근 작용 메커니즘(Famine Action Mechanism, FAM)을 비롯한 위기 관리 관련 사업 등 세계은행 FCV 부서의 핵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CV 팀은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 구축 신탁기금(Korea Trust Fund for Economic and Peace-Building Transitions, K-FCV)이 지원하는사업에 FCV 상황에 적합한 혁신 사례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FCV팀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16번 목표인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포용적인 사회 조성'에 관한 지식 공유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전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T와 함께 분쟁취약 국가를 대상으로 공간정보 디지털 기술 제공을 기반으로 한 보건 및 농업 관련 파트너십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농업부서 및 한국 농촌진흥청과 함께 취약·분쟁 상황에서 곤충을 지속가능한 식량 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공사(IFC)와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사업 및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FC 한국사무소는 프로젝트의 초기 개발 단계부터 한국 기업 및 금융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견고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에는 신흥시장에서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기간의 프로젝트 개발 기간(lead time)과 시장의 복잡성 등의 난제들을 극복하고 민간 발전사(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를 통해 진행되는 요르단의 Tafila 풍력 프로젝트(Tafila Wind Project),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으로 진행되는 네팔 Upper Trishuli-1 수력발전 프로젝트(Upper Trishuli-1 Hydro Project) 등 두 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체결하였습니다. MIGA 한국사무소는 워싱턴 DC 본부의 거래팀(deal team)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네팔과 솔로몬 제도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미얀마의 산업공단 프로젝트 등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2기

- 주요 사항
- 혁신과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 한국사무소 CMU(Country Management Unit) 주요 활동

주요 사항

2018년 4월, 한국 정부의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지원에 대한 2기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지원이 2019-2021 회계연도³로 연장되었습니다. 한국사무소 1기(회계연도 2015-2018)에 이은 2기(회계연도 2019-2021) 협정에서는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에 대한 정부 출연금이 670만 달러에서 1,900만 달러로 증액되었습니다. 2기 한국사무소는 세계은행 사업(그림 1)에 대한 지원 활동을 확대하고 녹색성장혁신과 취약·분쟁·폭력(Fragility, Conflict, Violence, FCV) 피해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기 협정의 이행을 위해 2018년 8월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세계은행그룹 초대 한국사무소 소장에 이어 2대 한국사무소 소장으로 소훈섭 소장이 취임하였습니다. 소훈섭 한국사무소 소장은 한국사무소 소장 임명 전에는 세계은행 북경사무소에서 세계은행의 중국·몽골 경제정책 포트폴리오를 총괄하는 프로그램 리더로 근무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는 마틴 레이저 국장이 세계은행 중국·한국·몽골 담당 신임 국장으로 버트 호프만(Bert Hofman) 국장의 뒤를 이어 취임하였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박준영 대표 후임으로 류지연 IFC 한국사무소 대표가 부임하였습니다.

소훈섭 소장은 취임 이후 2기 협정 이행을 위해 우선 한국사무소 확장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기존의 한국사무소 금융·경쟁력·혁신국(Finance,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CI GP⁴) 소속 팀과 개발경제 지식·전략(Development Economics Knowledge and Strategy, DECKS)팀에 추가로 세계은행 에너지(Energy and Extractives, EEX GP), 환경(Environment, Natural Resources and Blue Economy, ENB GP), 도시·토지개발국(Urban, Resilience and Land, URL GP) 직원들로 구성된 녹색성장혁신팀과 2명의 취약분쟁국(FCV) 직원으로 구성된 FCV팀이 한국사무소에 합류하였습니다. 사무소 규모 확대와 더불어 정규직원도 1기 14명에서 2기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사무소는 중점 분야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사무소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및 세계은행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사무소의 중점 분야를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 및 기술'로 합의하였습니다. 한국사무소는 녹색혁신 성장과 금융산업 개발, 지식 공유 및 관리, 취약국 지원 프로그램 등 모든 부문에 걸쳐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한국사무소는 혁신·기술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혁신·기술에 관한 경험을 소개하는 일련의 세미나(BBL) 및 사례연구(Knowledge Note) 시리즈를 기획하고, 한국사무소 뉴스레터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였으며, 2019년 11월 7-8일 서울에서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글로벌 혁신성장포럼(Global Innovative Growth Forum)도 개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2월 워싱턴 DC에 위치한 세계은행 본사에서 열리는 한-세계은행그룹 한국혁신주간(Korea Innovation Week)에도 주요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한국혁신주간에서는 그간의 한국과 세계은행간 파트너십과 한국의 혁신·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하는 한편, 세계은행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기회도 모색함으로써 개도국이 혁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세계은행그룹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4 GP = Global Practice

그림 1. 2기 중점 요소



참조: IFC = 국제금융공사; MIGA = 다자투자보증기구; WBG = 세계은행그룹

혁신과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그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은 급변하는 혁신환경에서 새로운 개발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과 빅토리아 과과 세계은행 동아태지역 부총재의 개회사로 시작한 동 포럼에는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에어비앤비(Airbnb) 한국 지사, 다음소프트(Daumsoft) 등 국내외 민간부문에서 약 4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포럼 첫날 전세계 혁신 및 기술 트렌드와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둘째 날에는 민간부문 대표들이 모여 플랫폼 공유와 데이터,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구윤철 차관과 빅토리아 과과 부총재는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을 대표적인 연례 행사로 공동 주최하고 혁신과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Innovation and Technology BBL Series (한국사무소 혁신 · 기술 세미나 시리즈)

한국사무소는 세계은행 GP팀과 함께 '혁신과 기술을 통한 개발'을 주제로 하는 브라운백 런치(BBL) 세미나를 시작하였습니다. 세미나는 내 · 외부 청중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종료된 후에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녹화영상을 세계은행 오픈러닝캠퍼스(Open Learning Campus, OLC)⁵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9회 진행된 BBL 세미나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BBL 세미나 혁신 및 기술 주제

	주제	날짜	참여부서	참여 한국 기관 및 한국 사례
1차	스마트시티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 경험과 교훈	2018년 11월 21일	도시 · 토지개발(Urban, Resilience and Land, URL) GP	한국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앱 및 서비스
2차	세계은행 파트너 국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2019년 6월 5일	디지털 개발(Digital Development) GP	한국인터넷진흥원
3차	고형 폐기물 관리: 기술적 방안 및 기획	2019년 6월 20일	도시 · 토지개발GP	이큐브랩
4차	디지털 농업 기술의 데이터 분석 및 정보	2019년 8월 28일	농업(Agriculture) GP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업환경 정보기술 전문기업 에피넷
5차	평생학습과 선진기술을 통한 숙련 격차(Skills Gap) 해소	2019년 9월 10일	교육(Education) GP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차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	2019년 10월 30일	교육GP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7차	빅데이터 및 ICT 기반 혁신 솔루션을 활용한 분쟁 · 취약 국가 지원	2019년 11월 19일	분쟁취약국(Fragility, Conflict, and Violence, FCV)	KT
8차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차량 안전 개선	2019년 12월 4일	글로벌 도로안전시설(Global Road Safety Facility), 교통 (Transport) GP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안전도평가

5 오픈러닝캠퍼스는 세계은행그룹 직원과 정책실무자, 개발협력 전문가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실용적인 국제개발 협력 지식을 나누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입니다.

	주제	날짜	참여부서	참여 한국 기관 및 한국 사례
9차	금융 혁신 서비스: 한국의 인터넷 전문은행(Internet-only Bank)의 사례	2020년 1월 22일	금융 · 경쟁력 · 혁신 (Finance,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GP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서울대학교

참조: GP = 글로벌 프랙티스(Global Practice)

Knowledge Note 시리즈 (한국의 개발경험 사례 연구)

한국사무소는 부서(GP)들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과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개발 경험 사례를 연구하는 Knowledge Note(사례연구)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Knowledge Note는 세계은행 직원과 한국 전문가들이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현장 담당자와 정책 입안자들을 위해 한국의 경험과 교훈을 요약한 간략한 사례연구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무소는 중진국에서 고소득국가로 도약하고, 혁신 · 기술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부상한 한국의 성장과정 및 발전경험을 조명한 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현재 준비 중인 Knowledge Note 시리즈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의 ICT 기반 토지 관리 시스템
- 기술 발전에 대비하는 교육 제도 개혁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입찰 시스템
-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only banks)
- 한국의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발전
- 저탄소 발전으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한국사무소 CMU(Country Management Unit) 주요 활동

한국-세계은행그룹 파트너십 강화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CMU(Country Management Unit)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한국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지원을 통해 세계은행이 한국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사무소는 한국의 주요 공공기관, 민간, 학계, 시민사회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뉴스레터 간행 및 웹사이트 업데이트와 함께 세계은행과 한국의 파트너십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사무소의 주요 파트너입니다. 한국사무소는 기획재정부와 매년 업무계획 회의를 통해 한국사무소의 주요 활동을 논의하고 다음 해 활동을 위한 전략을 구상합니다. 2019년에는 혁신·기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한국사무소 CMU는 한국사무소내 각 GP팀 외에도 워싱턴 DC 세계은행 본사를 포함한 다른 사무소의 GP팀들의 한국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세계은행 국가사무소 소속 다양한



GP팀들은 한국의 성공적인 개발 경험을 담당 국가에 적용하기 위해 한국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 사무소는 4명의 세계은행 부총재 방한을 지원하며 한국과 세계은행그룹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서울대학교와 혁신·기술 파트너십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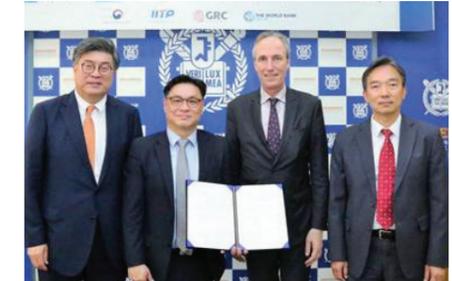
마흐무드 모히엘딘 수석부총재,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에서 연설 (2019년 2월 14일)

마흐무드 모히엘딘(Mahmoud Mohieldin) 세계은행 선임부총재(Senior Vice President for the 2030 Development Agenda, United Nations Relations, and Partnerships)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Global Engagement and Empowerment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보건: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혁신적 액션(Health: Holistic Approaches to Healthy Lives for All)' 세션에서 글로벌 기관의 활발한 참여가 없이 보편적 보건의료를 달성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세계은행이 보편적 보건의료 혜택 확대를 위해 구축 중인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2019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은 국제연합(UN)의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 아젠다' 현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반기문 세계시민센터, 한국국제협력단, 서울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한국사무소, 서울대학교와 양해각서 체결 (2019년 7월 25일)

세계은행과 서울대학교는 양 기관의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마틴 레이저 세계은행 중국·한국·몽골 담당 국장이 세계은행을 대표하여 서명하였고, 서울대학교는 차국현 공과대학 학장이 대표로 서명하였습니다. 양해각서는 혁신·기술, 기업가정신 증진을 위한 한국과 세계은행의 정보 및 전문성 교류 협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니시오 아키히코 개발금융 부총재 방한 (2019년 8월 14-15일)

2019년 8월 14-15일에는 니시오 아키히코(Akihiko Nishio) 세계은행 개발금융 부총재(World Bank Vice President of Development Finance)가 방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KDI School)와 만나 개도국 지원을 위한 한국-세계은행 파트너십과 세계은행의 국제개발 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펀드 19차 재원보충(replenishment)에 대한 한국의 지원 범위를 논의하였습니다.

막타 디옴 인프라 부총재 방한 (2019년 10월 1-5일)

2019년 10월 디지털 경제 및 운송 분야 등에서 혁신기술과 관련된 잠재적 파트너십 논의를 위해 세계은행 인프라 부총재(Vice President for Infrastructure) 막타 디옴(Makhtar Diop)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디옴 부총재는 한-세계은행그룹 파트너십에서 한국사무소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계은행의 5G(5세대 이동통신) 플래그십 보고서와 함께 데이터 기반 개발을 주제로 내년 발간될 세계 개발 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에 관한 한국과의 협업 기회를 논의하였습니다.

빅토리아 과과 동아태지역 부총재 방한 (2019년 11월 6-8일)



2019년 11월에는 빅토리아 과과 세계은행 동아태 지역 부총재가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방한 기간 동안 과과 부총재는 제 1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전달하고,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다수의 한국 기관들과 만남을 통해 혁신·기술 관련 파트너십 강화 기회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김희정 기획재정부 차관보와의 회의에서는 한국-세계은행그룹 파트너십 범위 확대와 함께 한국측의 개발협력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에서 과과 부총재는 한국이 세계은행의 중요한 개발 파트너라는 사실과 혁신·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성공과 역량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한국 디지털 개발 경험 연수에 25개국 참여하다 (2018년 10월 15-19일)

세계은행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5일간의 디지털 개발 워크숍을 한국에서 주최하였습니다. 디지털 개발 협력체계(Digital Development Partnership, DDP) 파트너 국가와 스마트아프리카연합(Smart Africa Alliance), 세계은행 전략 파트너의 대표들은 워크숍을 통해 대화와 아이디어를 나누며 디지털 정부 정책 도입 및 디지털 경제 기반 조성에 관해 한국과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 개소식 (2018년 10월 31일)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조성된 글로벌 플랫폼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하여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지식 공유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사무소의 주요 파트너입니다. 개소식 기초연설에서 소훈섭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소장은 오픈러닝캠퍼스(Open Learning Campus)와 글로벌 딜리버리 이니셔티브(Global Delivery Initiative) 등 한국과 세계은행의 광범위한 지식 및 역량구축 파트너십을 강조하였습니다.

6차 도시교통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2018년 10월 28일-11월 3일)

세계은행과 한국교통연구원, 아시아개발은행은 서울에서 6차 도시교통지도자 양성 프로그램(Leaders in Urban Transport Program)을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8개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7일 간의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도시 교통의 전체적 관리와 토지 이용 및 에너지, 기후변화 간의 상호 연계성에 대해 강의를 듣고, 문제 진단과 전략적 기획, 지배구조, 예산 확보에 관한 사례연구와 팀 활동을 진행하였고, 서울시의 대중교통 개혁과 복합 교통망,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 관한 상세한 경험을 배우기 위해 현장 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세계개발보고서 '변화하는 일자리' 워크숍 개최 (2018년 12월 5-7일)

2018년 12월 한국에서는 2019 세계개발보고서 '변화하는 일자리(Changing Nature of Work)' 발간 기념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컨퍼런스에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일자리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역량 개발 및 노동력의 이동, 노동자 보호, 사회보장 개혁 정책 및 프로그램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재정협력체, 서울에서 실무자 공동체 회의 개최 (2019년 3월 6-7일)



아시아태평양 재정협력체(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PEMNA)가 '동아시아 정부 재정의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 in Government Treasuries in East Asia)'이라는 주제로 한국에서 개최한 재무당국 실무자 공동체(Treasury Community of Practice) 회의에 14개 회원국이 참여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동아시아의 디지털 변혁 및 개혁 경험이 공유되었습니다. 재정운용 체계와 현금흐름 전망, 조달, 결제 시스템에 관한 세션에서는

국가별 발표가 이어졌고, 특히 정부서비스 온라인 결제를 비롯한 정부의 재정 기능 디지털화가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성장, 생산성, 그리고 혁신: 한국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에 관한 워크숍 개최 (2019년 4월 1일)

디팍 미슈라(Deepak Mishra) 부국장(Practice Manager)이 이끄는 세계은행 거시경제·교역·투자국(Macroeconomics, Trade, and Investment, MTI GP) 소속 팀의 주재로 한국개발연구원,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와 공동으로 ‘성장, 생산성, 그리고 혁신: 한국에서 얻은 교훈(Growth, Productivity, and Innovation: Lessons from Korea)’에 대한 일련의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 태국,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세계은행 전문가들은 워크숍을 통해 한국의 개발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각 담당 국가에 유의미한 정책적 교훈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훈섭 한국사무소 소장은 중소기업에서 고소득 국가로 도약을 이루고 글로벌 혁신 및 기술 리더로 부상한 한국의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글로벌 R&DB 센터 개소식 (2019년 4월 30일)

서울대학교는 과학기술의 발전 및 보급 증진과 기술경영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글로벌 R&DB 센터(‘B’는 비즈니스를 의미)를 설립하였습니다. 소훈섭 한국사무소 소장은 개소식의 기조연설에서 기술 발전으로 인한 개발 효과를 강조하고, 세계은행그룹의 개발을 위한 기술 활용 노력과 세계은행 혁신·기술 아젠다에 대한 한국사무소의 기여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인프라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 (2019년 5월 23-24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거버넌스에 대한 지역 최초의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on Infrastructure Governance and Tools)에는 동남아시아 40개국에서 14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습니다. 세계은행과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 수출입은행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아시아 각국 정부와 민간 부문, 다국적 기구 및 기타 개발 파트너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속가능 개발의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규제와 거버넌스,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19 한국 스마트시티 스터디투어 (2019년 9월 2-6일)

세계은행 파트너 국가들과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스마트시티에 관한 통찰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제 3차 한국 스마트시티 스터디투어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세계은행 스마트시티 융합연구단(Smart Cities Knowledge Silo Breaker),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orea-World Bank Partnership Facility)이 함께 조직한 이 스터디투어에는 4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19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역량강화 프로그램 (2019년 10월 28-30일)

2019년 10월 28-30일 한국 재정정보원과 세계은행은 공공재정관리 정보 시스템에 관한 워크숍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지원한 워크숍에는 인도 아삼 주와 부탄, 헝가리, 베트남에서 5개국 대표단이 참여하였습니다.

2019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 (2019년 10월 25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2019년 10월 25일 서울에서 개최한 2019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 국내외 연사 총 2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마틴 레이저 세계은행 중국·한국·몽골 담당 국장은 기조연설에서 세계은행의 관점에서 본 4차 산업혁명을 논하였습니다. 기조연설에서 레이저 국장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기술 보급의 혜택을 지키면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데이터 보안을 강조하였습니다.



세계개발보고서 2020 발간기념 플래그십 워크숍 (2019년 11월 21-22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와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한 ‘세계개발보고서 2020: 글로벌 가치사슬 시대의 개발과 무역’ 발간 기념 플래그십 워크숍이 2019년 11월 21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국제기구와 정부 기관, 학계에서 참여한 이 워크숍에서는 세계개발보고서 2020의 공동 저자이자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Chief Economist) 아디타 마토(Aaditya

Matto)와 선임 이코노미스트(Senior Economist) 클레어 홀웨그(Claire Hollweg)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7차 도시교통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2019년 11월 17-23일)

한국교통연구원과 세계은행 교통국(Transport GP),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이 공동 조직한 7차 도시교통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워크숍에는 정책입안자와 기획자, 공무원뿐 아니라 프란츠 R. 드리스-그로스(Franz R. Drees-Gross) 세계은행 인프라 국장(Director)과 광제 첸(Guangzhe Chen) 글로벌교통 국장이 참여하였습니다. 소훈섭 한국사무소 소장은 개회사에서 도시교통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스마트 모빌리티 등의 신기술을 접목하는 프로그램 개발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전달하였습니다. 세계은행 팀은 김경욱 국토부 차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을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대외 홍보

미갈 뢰카우스키 고용노동·국제정책국 국장의 코리아헤럴드 세계개발보고서 2019 인터뷰 (2018년 12월 9일)

미갈 뢰카우스키(Michal Rutkowski) 세계은행그룹 고용노동·국제정책국(Social Protection & Jobs, SPJ GP) 국장은 코리아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기술 발전과 자동화가 가져올 직업 환경의 변화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뢰카우스키 국장은 자동화 혜택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들이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해 더 나은 급여의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노동시장 강화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급여 및 직업 환경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도 제안하였습니다.

소훈섭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장의 아리랑TV ‘더 챔버’ 인터뷰 (2019년 7월 16일)

소훈섭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장은 아리랑 TV ‘더 챔버(The Chamber)’ 인터뷰에서 세계은행의 목적과 비전, 그리고 한국사무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의 목표인 극빈 근절과 공동번영 달성을 위해 민관 파트너들과 함께 개도국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공유허브로서 한국사무소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빅토리아 과과 세계은행 동아태 부총재의 코리아타임스 인터뷰 (2019년 11월 18일)

2019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빅토리아 과과 세계은행 동아태 부총재는 코리아타임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에서 과과 부총재는 한국의 실용적인 개발 경험을 활용하고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개도국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녹색성장 혁신 분야와 더불어 혁신·기술의 허브로 한국사무소의 역량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하였습니다.

미디어 활동

소훈섭 소장 인터뷰 목록

- 브레튼우즈 뉴스레터 인터뷰 (2018년 9월)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 채용 설명회 인터뷰 (2018년 10월)
- 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 (2019년 4월)
- 건설이코노미뉴스 인터뷰 (2019년 5월)



표 2. 한국사무소 미디어 및 대외 홍보 활동

행사명	개최/주관 기관	활동 내용
브레튼우즈클럽 (2019년 4월 5일)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 기금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회원으로 구성된 브레튼우즈클럽	• 소훈섭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소장이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의 혁신과 기술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에 관한 발표
서울대학교 글로벌 R&DB 센터 개소식 (2019년 4월 30일)	서울대학교	• 소훈섭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소장이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혁신 및 기술을 주제로 기조연설
국회 아프리카 새시대 포럼 조찬 세미나 (2019년 7월 3일)	국회	• 소훈섭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소장이 세계은행의 아프리카 프로그램과 한국사무소의 아프리카 프로젝트 및 지식 협력 지원에 대해 기조연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9 (2019년 9월 4-7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 소훈섭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소장이 세계은행 지원 프로젝트와 혁신기술 기반 솔루션 등 수자원 부문 세계은행 활동에 대해 기조연설
온실가스 국외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한 한-세계은행 컨퍼런스 (2019년 10월 11일)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 소훈섭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소장이 탄소 가격책정 및 기후시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한 정책도구 개발과 제도적 역량 구축, 정보 기반 의사결정 촉진을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중요성에 대한 축사 전달
제9회 GSDV (Green Smart Development & Vision) 국제 심포지엄 2019 (2019년 11월 26일)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부산대학교 등 10개 기관	• 기조연설에서 소훈섭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소장은 다양한 부문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해 디지털 기술과 파트너십에 대한 니즈를 활용하여 도시관리와 공공서비스 전달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를 집중 조명함
201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제 심포지엄 (2019년 12월 11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소훈섭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소장이 '국제개발협력에 위한 혁신·기술 분야 파트너십'을 주제로 기조연설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부서 활동 내용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혁신 (Green Growth Innov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금융 · 경쟁력 · 혁신(Finance,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 글로벌 지식협력 신탁기금(Korea Program for Operational Knowledge)
- 취약 · 분쟁 · 폭력(Fragility, Conflict, and Violence)
- 교육(Education)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는 한국의 개발 혁신에 대한 파트너 국가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사무소 2기에서 한국의 지식·전문성 공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장하였습니다. 운영 지원이 확대되면서 한국사무소에는 녹색성장혁신팀이 신설되어 캐서린 켈름(Katherine Kelm) 토지·공간정보부 선임 담당관(Senior Land Administration Specialist)과 모리스 롤린스(Maurice Rawlins) 천연자원 관리부 담당관(Natural Resource Management Specialist), 황인철 에너지국 선임 담당관(Senior Energy Specialist)이 팀원으로 합류하였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팀은 한국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어업 및 연안 자원, 고형 폐기물, 오염, 삼림 및 토지 관리, 전력망, 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개발도상국들을 돕기 위한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녹색혁신 성장 기술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한국 기관과의 파트너십 기반이 필요합니다. (표 3 참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혁신

한국사무소 주요 파트너 -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orea Green Growth Trust Fund, KGGTF)은 녹색성장 아젠다에서 한국사무소의 주요 파트너입니다.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녹색성장혁신팀의 사업 및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혁신팀은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이 지원하는 활동과 소속 부서(GP)의 사업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행합니다. 한국 사무소(Country Management Unit)는 한국녹색

성장신탁기금(KGGTF)팀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한국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베트남-한국 스마트시티 파트너십과 2020년 2월 계획된 아프리카 드론 포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은 2019년 9월 6차 '한국 녹색혁신의 날(Korea Green Innovation Days)' 연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과 접근방안을 논의하는 '한국 녹색 혁신의 날' 회의는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이 기획하는 대표 연례 행사로, 개도국과 세계은행그룹 직원, 한국의 파트너들이 모여 프로그램의 성과와 교훈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한국 녹색 혁신의 날'은 녹색성장 장기 기후 스마트 개발을 둘러싼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세계은행그룹 직원과 파트너 국가들, 녹색성장 전문가들기술과 운영 지식을 교환하는 플랫폼이 되어줍니다.

2019 한국 녹색혁신의 날에는 30여 개 국내 기관과 세계은행 직원 70여 명, 14개 개도국 공무원 9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세계은행 파트너십에 대한 패널 토론에서 소훈섭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사무소 녹색성장혁신팀이 패널로 참여하여 한국과 세계은행의 파트너십을 효과적으로 활용·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직원을 배치해야하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표 3. 한국사무소 녹색성장혁신팀의 국내 파트너십

한국기관	국가	주요 혁신관련 협력분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단	미얀마, 베트남	수산 양식업, 해양 오염,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을 비롯한 연안 자원 관리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첨단 매립 시스템을 비롯한 고형 폐기물·오염 관리 정책 및 기술
• 산림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산림 경관 계획·관리와 공간 정보·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을 통한 산림 경관 관리
•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ICT 기반 토지 감정·평가를 포함한 토지 행정 시스템
• 한국전력거래소	아프리카 국가	현대적 전력망 기획·구축·운영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필리핀, 베트남, 세네갈, 나이지리아	마이크로그리드를 비롯해 합리적인 가격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현대적 에너지 솔루션
• KT	아프리카 국가	KT 무선데이터 수집 기술을 활용한 지리 정보 기반 모니터링 및 관리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동아태 및 아프리카 국가	파트너 국가 참가자와 함께하는 디지털 농업지식 교류 워크숍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지속가능개발 목표 7번은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보편적 접근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 목표는 다른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세계은행의 기후변화 해결 노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세계은행 에너지국(Energy and Extractives, EEX GP)은,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와 에너지 부문 관리 지원 프로그램(Energy Sector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적정 가격의 안정적인 전력 서비스를 확대하고 에너지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한 기술·금융·정책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무소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다수의 한국 기관과 협력하여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젝트를 통해 동아시아 태평양(동아태) 지역 국가의 청정 에너지 체제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청정 대기 프로젝트 추가 지원 (몽골, 1200만 달러, P167421)

울란바토르 청정 대기 프로젝트(Ulaanbaatar Clean Air Project)는 친환경 난방 에너지 확대를 위한 몽골 정부의 정책 수립 및 규제 개선을 지원하고, 기술 자문과 인식 제고 캠페인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보일러의 교체, 주택 단열 프로젝트 등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된 기술 검토 및 정책 자문에 에너지국 황인철 부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무소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재정 지원으로 2019년 11월에 몽골 공무원 9명을 초청하여 세계은행그룹-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동 '몽골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 지식교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몽골 공무원들은 한국이 어떻게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녹색 기술의 보급을 촉진하여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켰는지를 직접 보고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주거용 건물(에너지 제로 아파트)과 상업용 건물(그린 제로 에너지 사무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난방시설, 노후 아파트 대상 녹색 주택 개보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베트남 산업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베트남, 1억 달러, P151086)

베트남 산업 에너지 효율(Vietnam Energy Efficiency for Industrial Enterprises)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사무소는 다양한 산업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및 사업모델을 소개하고 관련 기업, 금융기관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경험을 공유하는 지식 교류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행사에 초청된 베트남 공무원들은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협회, 에너지 효율 관련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에너지 효율 정책 도입과 관련 사업 기회 발굴 및 실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본 지식 교류는 베트남의 유망 산업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 개발 프로젝트 (태평양 도서국, 566만 달러, P152653)

태평양 도서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 개발 프로젝트(Pacific Islands Sustainable Energy Industry Development Project)는 태평양 도서국 지역 전력사들의 데이터 가용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재생에너지 기술 적용과 재난 위험 대비 장기 계획을 수립·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산업 가이드라인과 기준 개발에 참여 중인 에너지국 황인철 부장은 한국전력공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태평양 전력협회(Pacific Power Association, PPA) 회원사들과 태평양 도서국 담당 세계은행 직원들을 한국전력공사 대표 행사 중 하나인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BIXPO) 2019에 초청하였습니다. 초청된 PPA 관계자들은 태평양 도서국 지역 e-모빌리티와 배터리 저장장치 프로그램에 한국의 전문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남-남 지식 교류: 아프리카 전력계통 운영 및 계획을 위한 마스터클래스 (2019년 5월 13-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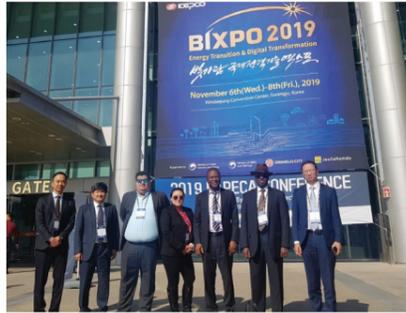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과 전력거래소, 세계은행 에너지국은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이 출연한 '역량 구축과 교육, 남-남 지식교류를 통한 전력사 역량 강화(Strengthening Utility Capabilities by Capacity Building, Education, and South-South Knowledge Exchange, SUCCESS-K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력계통 운영 및 계획에 관한 마스터클래스를 2019년 5월 2주간 나주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마스터클래스 기간 동안 서아프리카 전력 협회(West Africa Power Pool, WAPP)와 세계은행 관계자 36명이 참가하여, 한국 전력거래소의 첨단 전력망 계획·구축·운영기술에 대해 배우고, 실시간 급전과 예측, 안정성 확보 및 특수 보호 시스템, 전력 시장 정산, 모니터링 등에 관한 전력거래소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또한 765kV 변전소와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설, 전력시험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동 마스터클래스는 세계은행 우선 사업대상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전력망 계획·구축·운영 지원을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남-남 지식 교류: 남아시아 에너지 효율 및 그린빌딩 (2019년 6월 17-21일)

2019년 6월, 세계은행 에너지국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WPF)은 서울에서 7일 간 남-남 지식교류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의 파트너 기관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그린빌딩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행사로, 한국사무소의 황인철 에너지 부장이 남-남 지식교류 행사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사는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실무 책임자들이 건물 에너지 효율과 그린빌딩 분야의 정책과 사업모델, 파이낸싱에 대해 배우고, 해당 영역에서 한국의 폭넓은 경험과 리더십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19년 11월 6-8일)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 11월 광주에서 대표 연례 행사인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BIXPO)를 개최하였습니다. 세계은행 에너지국 지 탕(Jie Tang) 부국장과 황인철 부장, 그리고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의 이은주 매니저는 BIXPO에서 '개도국에서의 혁신적 에너지 기술 적용'이란 주제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세계은행 에너지 포럼'을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포럼에는 동아태, 중앙아시아, 동유럽 지역의 전력사 고위급 관계자 9명을 초청하여 각 프로젝트에서 채택한 혁신적 기술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세계은행 출장단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수출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비롯한 한국의 다양한 에너지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여 향후 협력 및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환경 및 천연자원 관리

세계은행의 환경국(Environment, Natural Resources and Blue Economy, ENB GP)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천연자원 관리와 고형 폐기물 및 오염, 기후변화, 환경 리스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국 직원들은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한 디지털 혁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캄보디아, 필리핀과 미얀마의 환경 및 기후변화 난제 극복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사무소 환경팀이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로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인센티브와 가치흐름 개발, 지리 데이터에 기반한 민간 산림 파트너십 및 고형 폐기물 관리 개선, 지리 데이터 및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산림 및 경관 관리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지속가능한 경관 및 생태관광 프로젝트 (캄보디아, 5440만 달러, P165344)

캄보디아 지속가능한 경관 및 생태관광 프로젝트(Cambodia Sustainable Landscape and Ecotourism Project)는 농촌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고 캄보디아의 풍부한 담수 어업 및 산림 등의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생태관광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캄보디아 비목재 임산물의 가치사슬 강화를 통해 농촌경제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비목재 임산물 산업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업가적 역량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캄보디아 천연자원 보존을 위한 보호구역 제도 강화를 위한 투자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모리스 롤린스 환경국 소속 천연자원 관리부 담당관이 프로젝트 관리하고, 생태관광 발전을 위해 한국 산림청의 전문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공무원 참여 고형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술지식 교류 (2019년 3월 10-15일)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2019년 3월 한국에서 캄보디아 재정경제부와 환경부, 공공교통사업부, 프놈펜 시청, 시엠립 시청의 고위급 관료들을 초청하여 지식 교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7일에 걸친 방한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현장 방문과 함께 고형 폐기물 관리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한국의 폐기물 관리 지원 및 규제 체제와 함께 민간 파트너십을 포함한 사업 모델, 기존 고형 폐기물 관리 활동에 사물인터넷(IoT)을 도입하기 위한 첨단 기술, 이러한 첨단 기술이 도시 계획 및 신도시 개발에 적용되는 과정, 지역 매립지의 포괄적 관리 등에 관한 주제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한국의 사례를 심도 있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비용은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고형 폐기물 관리 기술 및 지식 전파 워크숍 (2019년 6월 19일)



세계은행 환경국과 한국사무소,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은 2019년 6월 1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와 개발협력 파트너, 민간부문 대표들을 초청하여 고형 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식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3월 개최된 고형 폐기물 관리 기술지식 교류 프로그램의 후속 행사로 기획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 참석자들이 배운 내용과 경험들을 관련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의 고형 폐기물 관리 정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행사는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측과 지식 교류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는 지역 매립지에 한국의 고형 폐기물 관리 기술 솔루션을 벤치마킹하는 세계은행 프로그램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얀마, 베트남을 위한 한국 수산업 벤치마킹 지식 교류 (2018년 9월 10-14일, 2019년 9월 18-25일)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의 자금과 지원을 받는 세계은행 미얀마와 베트남 사무소 환경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베트남 대표단(2018년 9월 10-14일)과 미얀마 대표단(2019년 9월 18-25일)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양식업과 해양 오염, 연안 자원 관리를 위한 한국의 혁신적 기술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지식 교류를 계기로 미얀마 정부는 양식업과 공급망 발전, 청색경제(Blue Economy) 로드맵 개발, 어획 어업 모니터링·통제·감시에 관한 세계은행 기술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수산업 및 청색경제분야 개발에 세계은행 차관 지원을 받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국가 위험 회복성 프로그램을 통한 필리핀 기후 회복성 증진 (2019년 11월 20일)

모리스 롤린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천연자원 관리부 담당관은 필리핀에서 다년간(2017-19년) 기술 지원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기후 회복성을 위한 국가 계획 및 예산 개혁 방안 마련과 도입을 지원해 왔습니다. 롤린스 담당관은 2019년 11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필리핀에서 필리핀-세계은행 고위급 공동 워크숍 '위험 회복성 프로그램을 통한 기후 투자 가속화(Accelerating Climate Investment through the Risk Resiliency Program)'를 조직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공동 워크숍을 통해 필리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해관계자들은 정책 및 규제, 기획, 예산 책정 등에서 기후 회복성을 개선하는 정부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관과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과 환경국은 해안 및 해양 지역의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해양환경공단과의 협업을 도모하는 파트너십 의향서를 준비 중입니다.
-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 환경국은 2019년 7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및 해양 산업 개발을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환경국은 한국 산림청과도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미얀마에서의 산림복원 및 생태관광을 포함한 산림관련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한 후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글로벌 토지·공간정보 인프라

세계은행 도시·토지개발국(Urban, Resilience and Land, URL GP)에 소속된 글로벌 토지·공간정보부(Global Land and Geospatial Unit)는 토지 개혁·행정, 지리공간정보 관리를 위한 글로벌 솔루션을 개도국에 전수합니다. 한국사무소 토지·공간팀은 동태 지역에서 다수의 토지 행정 및 지리공간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리공간정보와 기술은 경제 변혁과 지속가능 개발에 큰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전자정부와 전자서비스, 전자상거래, 스마트시티, 정밀 농업, 기후변화 증식을 위한 노력, 재난위험 관리 개발에서도 꼭 필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베트남 토지 거버넌스 및 데이터베이스 개선 프로젝트 (베트남 1억 5,000만 달러, P154387)

세계은행의 베트남 토지 관리 프로젝트(Vietnam Land Administration Project) (1억 5,000만 달러 규모)는, (1) 베트남 토지 관리 서비스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2) 다목적 토지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개발, (3)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가 포함된 지속가능 프로젝트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인 캐서린 켈름(Kathrine Kelm) 토지·공간정보부 선임 담당관(Senior Land Administration Specialist)은 한국감정원이 직접 개발하여 베트남에 실행한 컴퓨터 기반의 대규모 토지감정 기술 도입에 이어 베트남의 토지 정책과 입법 개혁 작업을 조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 지가정보 시스템 도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소유권 기준 토지 구획 프로젝트 (필리핀, 3억 7,000만 달러, P172399)

세계은행은 필리핀에서 최대 규모의 토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토지 행정 프로젝트(3억 7,000만 달러 규모)를 준비 중입니다. 한국사무소의 캐서린 켈름 토지·공간정보부서 선임 담당관이 관리하는 본 신규 사업은, (1) 토지 소유권 보호, (2) 농지 개혁 수혜자 재산권 강화하기 위해 추진 됩니다. 본 사업은 토지 행정에 필요한 기술의 적용과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농지 소유권 정립을 통한 필리핀 정부의 기존 사업에 효율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지리공간정보 관리 자문 서비스 (전세계, 80만 달러)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이 재정을 지원하는 글로벌 지리공간정보 관리 자문 서비스(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Advisory Services)는 전세계 각국이 지리공간정보 통합 프레임워크(Integrated Geospatial Information Framework, IGIF)를 통해 글로벌 지리공간정보 관리를 개발·통합·강화하도록 추진되었습니다.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의 캐서린 켈름 토지·공간정보부 선임 담당관은 UN 전문가위원회와 함께 글로벌 지리공간정보 관리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글로벌 지식협력 신탁기금(Korea Program for Operational Knowledge, KPOK)을 통해 일부 선발전 국가에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IGIF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몽골, 필리핀, 베트남은 본 자문 서비스를 통해 국토지리정보원(NGII),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국가 차원의 지리공간정보 관리를 위한 실행·투자 계획을 진행·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리공간정보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워크숍 (2018년 11월 30일)

국토지리정보원이 주최한 ‘한국 지리공간정보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Expanding Korean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y into Overseas Market)’ 워크숍에서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의 캐서린 켈름 토지·공간정보부 선임 담당관이 패널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행사에는 업계 대표 약 25명이 참가해 세계은행과 UN 지리공간정보관리 전문가위원회(United Nations Committee of Experts on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가 함께 수립한 전략적 IGIF와 국제 개발 활동에 대해 학습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 우즈베키스탄 통합형 도시·지역 개발을 위해 시의적절한 지원 제공 (2019년 1월 30일)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과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는 중소도시를 위한 통합형 도시 개발 프로젝트 (Medium-Size Cities Integrated Urban Development Project)와 관련한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우즈베키스탄 파트너들과 소통할 수 있는 워크숍을 타슈켄트에서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료와 국제 기술전문가, 민간부문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고, 한국사무소에서는 소훈섭 한국사무소장이 패널토론의 좌장으로, 캐서린 켈름 토지·공간정보부 선임 담당관이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도심 및 지역 개발과 교통, 물류 계획에 관한 기술적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서울금융자문센터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금융·경쟁력·혁신(Finance,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CI) 팀이 운영하는 서울금융자문센터(Seoul Center for Financial Sector Development)는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동아시아지역 금융 안정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별 프로그램 및 수혜국의 요청에 따른 업무들을 기술적 지원 및 역량 강화 활동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한국은 금융시스템과 주요 기관을 강화하여 금융 건전성 및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최소화하며 극복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금융부문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서울센터가 지난 1년 반 동안 담당할 주요 파트너십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공무원 대상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지식 교류 (2018년 8월)

서울센터는 베트남 재무부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한국의 채권시장 발전을 소개하는 방문연수를 기획 및 실시하였습니다. 한국의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미래에셋대우가 한국 채권시장 발전 관련 연수세션을 각각 담당하여 지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지식 교류 행사는 베트남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주요 규제 개혁에 기여하였습니다.

캄보디아 공무원 대상 금융부문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지식 교류 (2018년 12월)

서울센터는 캄보디아 재정경제부와 중앙은행 대표단 20명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한국의 조기경보시스템을 소개하는 방문연수를 기획 및 실시하였습니다.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각각 연수세션을 담당하여 한국의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경험에 대해 지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지식 교류 행사는 캄보디아에서 진행 중인 금융안정체계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필리핀 금융부문 자문 프로그램 지원 (2019년)

서울센터는 세계은행의 필리핀 금융부문 자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 필리핀 금융당국자들과의 협의를 주도하며 '필리핀의 농업금융: 공공 정책과 리스크 관리 수단 재고(Financing Agriculture in the Philippines: Rethinking Public Policy and Risk Management Instruments)'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2) 필리핀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3) 중소기업 금융을 위한 핀테크 발전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한편, (4) 세계은행의 또다른 금융자문센터(Financial Sector Advisory Center, FinSAC, 오스트리아 소재)와의 파트너십 하에 필리핀 예금보험공사(Philippines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와 부실채권관리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5) 필리핀의 공공 신용보증제도의 통합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실채권 정리 관련 아시아 지역 국제회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 (2019년 4월 24-25일)

서울센터는 말레이시아 사무소의 FCI팀 및 FinSAC과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 주관 하에, 부실채권 정리 관련 아시아 지역 국제회의(Asia Regional Conference on Non-Performing Loans Resolution)를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본 회의는 세계은행그룹의 아시아 지역 수혜국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부실채권 주요 동향, 각국의 정책 수단, 역내 선진국의 경험 등을 논하며 부실채권 정리 체계 강화와 관련 역량 구축을 도모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센터의 지원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에서 연사 두 명이 참석하여 각 기관의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한 연구보고서 두 건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몽골 공무원 대상 도산제도 관련 지식 교류 (2019년 5월)



서울센터는 몽골의 도산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몽골의 민사법원 판사 및 법무부 공무원의 방문연수를 기획 및 실시하였습니다. 동 연수 프로그램에는 한국의 법무부와 서울회생법원, 사법연수원, 나이스신용정보가 참여하여 한국의 도산제도와 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지식 교류 행사는 몽골의 도산제도 관련 새로운 법규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지원 (2019년 5월 23-25일)

서울센터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및 한국핀테크 지원센터와의 협력 하에 주최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를 지원하였습니다. 세계은행 금융·경쟁력·혁신국(FCI GP)에서 아이반 모티머-슈츠(Ivan Mortimer-Schutts) 금융부문 선임 담당관(Senior Financial Sector Specialist)이 연사로 참석해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개혁의 접근방식 평가 및 제언(Perspectives on Regulatory Sandboxes and Broader Approaches to Regulatory Reform)'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세계은행 재무부서에서 하윤정 선임 금융 담당관(Senior Financial Officer)이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핀테크 도입 사례(Fintech Adoption in Global Capital Markets)'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세계은행은 금융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지역위원회 한국 방문연수 지원 (2019년 9월)



예금보험공사가 주최한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의 아태지역위원회(Asia-Pacific Regional Committee)의 한국 방문연수에서 사미어 고열(Sameer Goyal) 서울센터장은 '금융안전망 설계 시 주요 고려사항(Financial Safety Nets: Key Design Considerations)'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연수 참가자들은 금융안전망 담당

주체들의 역할 및 책임,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및 정보 공유, 금융안전망 내에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글로벌 예금보험제도 연수 프로그램 지원 (2019년 11월)

예금보험공사의 제 5회 글로벌 예금보험제도 연수 프로그램에서 사미어 고열 서울센터장이 금융안전망과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강연을 하였습니다. 동 연수에는 동아태, 아프리카, 남미 지역 16개국의 예금보험 관련 기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은 예금보험공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도국의 금융안전망 확립을 돕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제도 운영 및 부실은행 정리 경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금융자문센터 한국 신탁기금

서울금융자문센터는 한국 정부에서 공여한 동아태지역 금융부문 신탁기금을 관리하며 개도국의 금융부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표 4 참조). 수혜국과 한국 파트너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동 신탁기금이 지원할 국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서울센터 팀은 또한 동 신탁기금 사업 및 관련 국가 사업에 적절히 참여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동 신탁기금에서 동아태지역 국가 사업 10개와 지역 사업 4개에 총 22회의 사업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표 4. 서울센터 신탁기금 사업 지원 현황

사업명	수혜국	누적 지원 규모 (단위: 미 달러)	목적	한국 파트너	단계
빈곤층 금융포용 사업 (1-2기)	미얀마	4,652,000	미얀마 빈곤층 금융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자문 제공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진행 중
금융부문 발전 사업 (1-2기)	라오스	2,320,000	라오스 금융부문의 안정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자문 제공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연수원, 예금보험공사, 법무부, 서울회생법원	진행 중
금융부문 발전 사업 (1기)	캄보디아	2,142,600	금융부문 현대화 및 제도개선의 핵심 영역에서 캄보디아 금융당국 지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예금보험공사	진행 중
금융부문 발전 지원 사업 (1-2기)	몽골	2,406,000	몽골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다양성, 포용성을 위한 다양한 자문 제공	사법연수원, 예탁결제원, 법무부, 서울회생법원	완료 (2019년 6월 말)
금융부문 발전 및 포용 사업 (1기)	필리핀	600,000	필리핀 금융시스템의 발전 및 금융포용 지원	예금보험공사	완료 (2019년 12월 말)

참조: FCI GP = 금융·경쟁력·혁신(Finance,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국

한국사무소 개발경제 지식·전략(Development Economics Knowledge and Strategy, DECKS)팀은 한국 정부가 출연한 글로벌 지식협력 신탁기금(Korea Program for Operational Knowledge, KPOK)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POK은 개발 실무 지식과 국제 개발 사업의 교훈 및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개도국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 KPOK은 저소득국가에서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성장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온라인·집합 강의와 워크숍, 사례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KPOK은 세계은행 오픈러닝캠퍼스(Open Learning Campus, OLC)를 통해 개발경험 및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온라인, 집합 학습 및 혼합형 학습 활동 및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딜리버리 이니셔티브(Global Delivery Initiative, GDI)를 통해 실무 담당자들의 개발 프로젝트 실행 경험을 기록·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무소 2기에서 KPOK은 고형 폐기물 관리(Solid Waste Management)와 디지털 농업 기술(Digital Agriculture Technology), 도로교통 안전(Road Safety)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고형 폐기물 관리 (2019년 6월 17-21일)

세계은행 오픈러닝캠퍼스(OLC)와 세계은행 도시·토지개발국(Urban, Resilience and Land, URL GP)은 국토연구원 및 글로벌지식협력단지(Global Knowledge Exchange and Development Center, GKED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2019년 6월 17-21일 OLC-KPOK 고형 폐기물 지식 교류(Knowledge Exchange on Solid Waste Management)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워크숍에는 6개국 혹은 경제권(엘살바도르, 가나, 인도, 네팔, 탄자니아, 서안·가자 지구)에서 19명과 세계은행그룹 직원 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전에 고형 폐기물 관리에 관한 온라인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온 참가자들은 글로벌 트렌드와 재정 마련, 해양 플라스틱, 순환경제 등 구체적 영역에 대해 심도 있게 파악하는 시간을 갖고, 마포자원회수시설과 월드컵 공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본 워크숍에 후속하여 오픈러닝캠퍼스는 고형 폐기물 관리의 솔루션이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둔 온라인 촉진학습과정과 자기주도학습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는 워크숍에서 발표된 한국사례들이 접목되었고 전세계 80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글로벌 딜리버리 이니셔티브에서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사례연구인 '예치금 제도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으로 생산자의 폐기물 관리 책임 확대에 대한 한국의 경험(Expanding Producer Responsibility for Waste Management in Korea from the Deposit Refund System to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과 '한국의 재활용 비율을 높인 쓰레기 종량제 정책(How the Volume-based Waste Fee Policy Increased Household Recycling Rates in South Korea)'을 토대로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오픈러닝캠퍼스 온라인과정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디지털 농업 기술 (2019년 8월 26-30일)



세계은행 농업국(GP)과 농림수산물 교육문화정보원과의 협력으로 진행된 2019년 8월 26-30일 디지털 농업 기술 지식 교류(Knowledge Exchange on Digital Agriculture Technology) 워크숍에는 세계은행 농업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6개국과 아세안+3 식량안보 정보시스템(ASEAN F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 Network)

회원국에서 총 6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글로벌 전문가 및 한국 실무자를 초빙하여 세계은행 디지털농업프레임워크(Digital Agriculture Framework)를 기반으로 농업분야의 주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솔루션, 농업기술 분야의 트렌드, 지원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였습니다. 워크숍 마지막날에 참가자들은 한 주 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국에 적용할 단계별 프로그램 계획안을 작성·발표하고, 이에 대해 참석자 및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세계은행 오픈러닝캠퍼스(OLC)는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과 연수 파트너십에 관해 체결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향후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도로교통 안전 (2019년 12월 2-6일)

KPOK은 2019년 12월 2-6일 세계은행의 교통국 및 글로벌도로교통안전국(Global Road Safety Facility, GRSF),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도로교통 안전(Road Safety)에 관한 지식 교류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워크숍에는 도로 교통 안전 주제와 연관된 세계은행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6개국과 해당 프로젝트에서 참여하는 세계은행 직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데이터 위험 분석과 안전 인프라, 차량 안전 향상을 위한 기술 적용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농촌 지역의 도로 안전에 관한 사례인 마을주민보호구간프로젝트(Village Zone Project)를 글로벌 딜리버리 이니셔티브(GDI) 사례연구로 소개하는 한편, 직접 프로젝트 현장 두 곳을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각국 참가자들은 교통 사망자 수를 30년 만에 80% 가까이 감소시킨 한국의 경험이 개도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와 파트너십

KPOK은글로벌지식협력단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2018년 한국 정부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설립한 센터로서,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의 주요 목표는 (1) 국제 개발 어젠다에 대한 한국의 연구 강화, (2) 한국 개발 역사와 관련 연구에 대한 전시회 조직, (3) 연구 및 전시회 콘텐츠를 활용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표 5. KPOK 활동

(2019년 12월 기준)

프로그램	참가국	목표	한국 파트너	프로젝트 결과물
OLC				
온라인 강좌	전세계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강좌(한입크기 학습과정, 자기주도형학습과정, 촉진학습과정, 온라인 공개수업(MOOC) 등)를 제공해 개발 솔루션 이행을 위한 역량 구축	OLC 온라인 강화를 통해 한국 사례를 공유한 지식전수자 30여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입크기학습과정 3개 MOOC 과정 2개 자기주도학습과정 8개 촉진학습과정 3개
혼합형 학습 프로그램	전세계	온라인 강좌와 오프라인 워크숍 세션, 현장 방문, 지식 공유 및 네트워킹, 액션플랜 수립 활동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 솔루션을 이행하는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도연구원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서울특별시 한국교통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형 폐기물 관리 디지털 농업 기술 도로교통 안전
GDI				
GDI 사례연구	전세계	개발 프로젝트의 실행 효과를 촉진·지원한 사례를 축적해 근거 기반을 구축. GDI 사례연구 방법론으로 프로젝트 실행에서 발생하는 도전과제 및 해결 과정 분석	한국국제협력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리핀 저류시설 공사에 관한 사례연구(Case study on construction of water impounding facilities in the Philippines)' 완성 사례연구 5개 진행 중
요약 보고서(Delivery note)	전세계	개발 프로그램의 실행 효과를 촉진·지원한 사례를 축적해 근거 기반 구축. 프로젝트 실행의 도전과제와 해결과정 분석을 좀더 간략하게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교통연구원 K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약보고서15개

참조: OLC = 오픈러닝캠퍼스(Open Learning Campus); GDI = 글로벌 딜리버리 이니셔티브(Global Delivery Initiative); KSP =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취약·분쟁·폭력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분쟁취약국(Fragility, Conflict and Violence, FCV) 직원들은 FCV 부서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핵심 산출물은 (1) 세계은행의 FCV 상황을 고려한 전략과 FCV 환경에서의 사업 활동 강화를 위한 분석 연구 및 국가 지원, (2) 글로벌 위기 관리 플랫폼(Global Crisis Risk Platform, GCRP)의 핵심 요소인 기근 작용 메커니즘(Famine Action Mechanism, FAM) 등 복합적 위기 관리 이니셔티브 지원, (3) FCV 상황에 적합한 혁신적 정책 및 사업지원 방안 등을 포함합니다. 한국사무소 FCV 직원들은 FCV 이슈에서 한국 개발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 구축에 적극 나서는 한편, 워싱턴 DC 세계은행 본사의 한국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 구축 신탁기금(Korea Trust Fund for Economic and Peace-Building Transitions, K-FCV) 사무국을 지원하면서 K-FCV 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혁신적 사례 및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촉진하고 있습니다. K-FCV 신탁기금은 한국과 세계은행그룹의 협업을 통한 FCV 국가 개발과 혁신적 국가 건설·평화 구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되었습니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FCV 직원들이 참여 지원 중인 프로젝트 중에는 중진국이 처한 FCV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 및 접근법 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자문그룹에는 소속된 한국 전문가가 프로젝트 주요 결과물에 대해 동료 평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분쟁 위험이 있는 국가에서의 세계은행관련 경험 평가를 통해 분쟁 위험요소를 완화하고 평화 구축에 기여할 기회를 창출하고 역량에 기반한 포트폴리오 관리와 사업 기획 및 추진을 지원합니다. 한국사무소 FCV 팀원들은 국가 지역별 위기 상황 관리 및 모니터링을 관리하는 GCRP 핵심 사업의 일부인 FAM 프로젝트가 식량안보의 첨예한 위협을 받는 국가에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FCV 부서가 진행하는 다수의 사업은 K-FCV 신탁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FCV 이슈 관련 한국과의 파트너십 및 지식 교류 촉진

한국사무소 FCV 팀원들은 FCV 참여를 원하는 다른 세계은행 프로젝트팀들과 협업하면서 한국 기관과의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 전문가와의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FCV 관련 세계은행 사업을 소개하고 협력 범위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FCV 한국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Global Compact Network Korea, GCKN), KT,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한국 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2019년 7월에 FCV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에서 세계은행의 FCV 접근법에 대해 발표하고 GCKN과 공동 주최한 라운드테이블에서 분쟁 피해국에 민간 부문을 활용한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KT와 지리공간정보 기술을 FCV 국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분쟁 취약 지역에서 개발 프로젝트의 영향 확대를 위해 2019년 11월 한국국제협력단 평화 전문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12차 서울 ODA 국제회의 (2018년 9월)

패트릭 배런(Patrick Barron) 세계은행 미얀마사무소 FCV 아시아 고문(World Bank FCV Advisor in Asia)은 '제 12차 서울 ODA 국제회의: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을 위한 포용적 ODA(Seoul ODA International Conference: Inclusive ODA for Global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에서 FCV 상황에서 세계은행 그룹의 프로젝트 접근방법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은성수 전 한국수출입은행장이자 현 금융위원장, 조현 전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자 현 유엔 주재 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하여 정부와 학계, 민간부문, NGO, 시민사회에서 800여 명의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세계은행 FCV그룹도 회의에 참여하면서 한국국제협력단과 파트너십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유엔-세계은행 공동 집필 평화보고서 '평화로의 길: 분쟁 예방을 위한 포용적 접근' (2018년 10월 22-23일)

2018년 10월 유엔-세계은행 대표단은 유엔-세계은행이 공동 집필한 보고서 '평화로의 길: 분쟁 예방을 위한 포용적 접근(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한국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계은행과 유엔,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K-FCV가 공동 후원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에는 정부와 국제기구,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NGO에서 약 15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역내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과 함께 인도주의·개발·평화 부문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예방적 접근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세계은행그룹의 취약·분쟁·폭력 전략 토론회 및 FCV 지식 공유 워크숍 (2019년 5월 27-30일)

FCV 그룹은 한국에서 FCV 전략에 대한 다자 이해관계자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에는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 민간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세계은행그룹 FCV 전략 컨셉 노트에서 설명한 FCV 상황에서의 향후 접근 방식에 대해 제언과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세라 마이클(Sarah Michael) 부국장(Practice Manager)과 번하드 메츠(Bernhard Metz) 선임 담당관(Senior Operations Officer)이 좌장을 맡아 세계은행이 FCV 상황 해결을 위해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노력과 접근법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후, 위험 및 회복력 평가(Risk and Resilience Assessments)와 지리정보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감독(Geo-enabled Monitoring and Supervision)을 위해 ICT 기반 FCV 지원의 체계적 이행(K-FCV ASA: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ICT-based Support for FCV)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행사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대학, FCV 현장에서 활동 중인 NGO·시민사회단체에서 약 4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FCV 상황에서 프론티어 농업을 위한 파트너십 및 지식 교류 촉진 (2019년 8월, 12월)

2019년 8월과 12월에는 K-FCV 지원 프로젝트, '아프리카 분쟁.취약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론티어 농업 기술 교류(water-saving, climate smart frontier agriculture in Africa's FCV context)'의 세계은행 농업팀 수석 경제학자(Lead Agriculture Economist) 도르테 베르네르(Dorte Verner)와 전문가팀이 방한하여 한국의 식용곤충산업 현황에 대해 배우고 고부가 대체농업 기술로서 아프리카 분쟁 취약국에서 곤충의 식량·사료 활용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파트너인농촌진흥청과 함께 방문단은 다양한 식용 곤충 사육장과 가공 공장을 견학하였습니다.

교육·노동 역량·과학 연구 역량 강화 노력을 통해 성공을 이룬 한국 사례에 개도국들이 많은 관심을 표현하는 만큼, 한국사무소 교육국(Education GP)은 한국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아 인적자원 역량 구축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 맞는 인력을 배출하고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방안을 동아태 지역과 아프리카, 남아시아 개도국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8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포럼 (2018년 11월 13-15일)

세계은행은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orea-World Bank Group Partnership Facility, KWPF)의 후원을 받아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교육 및 역량 개발에 관한 직업능력개발포럼을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포럼은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3(한국, 일본, 중국)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조율·협력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기회를 활용하는 동시에 직면하는 위험 관리 방안,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역내 투자 및 지식 공유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연수원(Smart Farm Training Center)과 피엔아이 컴퍼니를 방문해서 산학 협업을 통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직원 연수 프로그램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아태 국가 미래 역량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웹 세미나 (2019년 3-7월)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포럼에서 논의된 이슈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1) 동아태 국가들의 역량 격차 조사, (2) 국가 단위 자격인증 시스템과 국가역량기준, (3) 산학 연계 증진, (4) 교육과정 개혁을 통한 역량 격차 완화, (5) 평생 교육 및 첨단 기술을 주제로 한 웹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당 평균 13여 개 국가에서 50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활발한 정책 논의를 가졌습니다.

인도 공무원 참가 역량 개발 연수 (2019년 9월)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 주도로 진행되는 파트너십 확대 및 지식 공유 사업을 위해 인도 직업능력개발 창업부(Ministry of Skil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와 국립직업능력개발공단(National Skills Development Corporation), 주·지방 공무원, 부문별 역량위원회(Sector Skill Councils) 소속 고위 공무원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인도 대표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고용정보원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인력 개발 정책 및 관련된 고용 정보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포럼 (2019년 10월 29-30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역량 개발 혁신을 주제로 한 2019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에는 19개국의 교육 및 노동 관련 공무원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국제노동기구 등의 국제기구, 전세계 학계 전문가를 포함해서 1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주도적 학습 플랫폼과 학습의 게임화를 비롯한 역량 개발 부문의 혁신 이니셔티브들이 논의되었고 세계은행의 관련 연구 결과 및 각국 직업기술교육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제도를 평가·벤치마킹하는 표준 프레임워크가 소개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과학기술 파트너십 (PASET)

아프리카 과학기술 파트너십(Partnership for skills in Applied Sciences, Engineering, and Technology, PASET)은 2013년 과학·공학·기술 분야에서 아프리카의 관련 기술자, 공학자, 과학자를 양성하는 한편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 및 훈련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발족되었습니다. 한국은 지식 교류, 기술 지원 프로그램과 PASET 지역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WPF) 활동을 통해 PASET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PASET의 주요 파트너로 한국은 아프리카의 과학기술 고등교육 및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은 기획재정부를 통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진행하였고, 인적자원 개발과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s, STI)에 대한 기술 및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였습니다. 2015년 PASET은 아프리카 지역 장학·혁신 기금(Regional Scholarship and Innovation Fund, RSIF)을 설립하여 다수의 아프리카 출신 박사 후보와 박사 후 펠로우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ICT와 식량 안보, 기후변화 등 우선순위 영역에서 연구 및 혁신 역량을 구축하도록 도왔습니다. RSIF는 현재 한국 정부와 세계은행, 아프리카 정부들이 출연한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아프리카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 지역 장학·혁신 기금에 1,000만 달러 출연 (2018년 5월 23일)

한국 정부는 세계은행과 아프리카 지역 장학·혁신 기금에 1,000만 달러를 출연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해 아프리카의 기술 및 과학 역량을 증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금은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혁신적 기술 개발을 연구 중인 박사과정 학생과 대학 교수진을 위한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보통신기술과 태양광 발전, 소재 공학 등 분야의 혁신 성장을 위해 사하라 이남 대학과 한국 기관간 공동 연구가 확대되면서 더욱 통합된 국가간 지식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기관-PASET 양해각서 (2019년 5월)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제 5차 PASET 포럼에서 PASET은 RSIF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아프리카 과학기술 박사 학생들에게 최대 2년 한국에서의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2019년에 3개 기관보다 먼저 아프리카 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RSIF 프로그램 참여 협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9년 2월에는 PASET과 RSIF를 소개하고 한국기관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워크숍이 한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 민간부문의 신흥시장 진출 기회 지원

-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국제금융공사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는 개도국 투자 기회를 조사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한국의 민간부문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IFC 한국사무소는 취약·분쟁·폭력(fragility, conflict and violence, FCV) 상황에 놓여 있거나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회원국을 비롯한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다수의 한국 스폰서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FC 한국사무소는 총 32회의 한국출장을 통해 IFC 직원 36명을 한국 기업들과의 사업개발 논의를 지원하였습니다. IFC는 전력과 제조, 서비스, 금융, 벤처투자,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투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2019회계연도에 IFC는 장기간의 프로젝트 개발 기간(lead time), 복잡한 시장 구조 등 신흥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한국 스폰서들 주도의 프로젝트 두건에 참여하였습니다. IFC는 프로젝트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한국 스폰서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견고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대한 풍력 프로젝트(요르단 민간발전사(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 남부발전과 대림 에너지가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대한풍력발전은 요르단 타필라 지역에서 51.75MW급 풍력 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한풍력발전은 20년간 매년 153GWh의 전력을 남부발전과 계약 가격에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억 100만 달러로 예상되는 프로젝트 전체 비용 중에서 1,300만 달러는 A Loan으로, 6,170만 달러는 Parallel Loan으로 총당될 계획입니다. IFC는 2,600만 달러의 에쿼티 브릿지론(equity bridge loan)과 선순위채무(senior debt)로 금융구조를 주선하고, 자금조달 패키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리스왑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계약은 2018년 9월 18일 체결되었습니다.
- **Upper Trishuli-1 수력발전 프로젝트(네팔 민관 프로젝트(PPP)):** 한국남동발전과 대림산업, 계룡 건설산업이 IFC와 합작으로 설립한 네팔 수자원개발회사(Nepal Water and Energy Development Company, NWEDC)는 라슈와 지역에서 216MW급의 Upper Trishuli-1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2-15년 프로젝트를 공동 설계한 IFC 인프라벤처스(InfraVentures)가 425만 달러를 투자하여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으며, IFC는 A Loan 투자 최대 9,000만 달러, IFC 인프라벤처스를 통한 기존 지분투자 포함 최대 1,250만 달러의 자기자본투자에 더해 다양한 투자기금 이행기구로서 최대 1,250만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2019년 11월 1일에 체결되었습니다.

금융기관

IFC는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및 조달 기회에 관심있는 한국 금융기관들과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합니다. IFC는 2019 회계연도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등 3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금융사들을 지원하였습니다.

- **KEB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지분투자 및 대출(미얀마):** 2018년 7월 13일 IFC는 예금 수신과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하나은행의 100% 자회사인 KEB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KEB Hana Microfinance Limited, KHMF)에 현지 통화로 1,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대출을 승인하였습니다. IFC 대출금은 미얀마의 금융 포용성 향상과 빈곤 감축을 위한 KHMF 소액대출 및 영세업자 대출 지원에 사용될 것입니다. 향후 추가 자금조달은 IFC와 하나금융그룹과의 논의를 통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KEB하나 인도네시아 법인 유상증자 IV:** KEB하나 인도네시아 법인(KEB Hana Indonesia, KHI)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주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로 자리 잡은 네이버 자회사 라인(LINE)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이후 라인은 KHI의 20% 주주가 되었고, KHI와 라인은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송금 및 결제 서비스 뿐 아니라 수신·소액대출 금융상품을 제공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양사는 인도네시아 국내외 신용평가기관과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신용평가 모델을 개선하고 인도네시아 규제에 최적화된 온라인 고객알기제도(e-Know Your Customer, E-KYC) 등의 신원 확인 절차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IFC는 2019년 4월 4일 KHI와 유상증자 참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HI는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였고, IFC는 보유지분에 따라 할당된 총 1,500만 달러의 신주를 인수하였습니다.
- **프놈펜상업은행과 리스크분담상품 체결(캄보디아):** 2019년 6월 7일 IFC는 JB파이낸셜그룹(Financial Group) 자회사이자 캄보디아 10대 상업은행인 프놈펜상업은행(Phnom Penh Commercial Bank, PPCB)과 리스크분담상품(Risk Sharing Facility, RSF) 협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IFC와 PPCB는 심사기준을 통과한 중소기업 대출금 최대 3,000만 달러에 대해 각자 50%의 위험을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PPCB는 향후 5년간 중소기업·영세기업, 특히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약 5,500건의 대출을 성사시켜 5억 2,0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조·농업·서비스 산업과 스타트업 벤처투자

국내 제조 및 서비스 기업 뿐 아니라 벤처투자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IFC의 비중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IFC는 'IFC 이노베이션 데이(Innovation Day)'와 '디데이(D.DAY) X IFC' 등의 행사를 통해 한국 출사사들이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도 다양한 투자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IFC는 제약, 종자, 천연자원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한국 파트너와 투자 기회를 논의 중입니다.

대외 활동 및 파트너십

IFC는 지금까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이 주최한 민간투자 기후컨퍼런스(Private Investment for Climate Conferenc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최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플라자 컨퍼런스, 세계경제연구원(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IGE)이 주최한 부산 국제금융 컨퍼런스(Busan International Financial Conference) '아시아의 핀테크 선구자들(Fintech Pioneers in Asia)' (표 6 참조) 등 18여 개 회의 및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발표를 진행하면서 IFC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 기업의 IFC와 공동 투자에 대한 전략적 이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외활동으로 IFC는 지금까지 풍부한 투자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나 세미나에서 IFC 선임 담당자들이 하였던 연설과 발표는 미디어에 집중 보도되는 등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조·농업·서비스(manufacturing, agriculture, and service, MAS) 부문에서는 관련 한국 기업과 IFC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잠재력을 확대해갈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IFC는 한국 경제의 중심인 이들 기업과 관계를 강화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FCV 국가를 비롯한 신흥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IFC 이노베이션 데이, 미래 일자리를 논하다 (2018년 10월 23일)

IFC 한국사무소가 서울에서 주최한 제 3차 IFC 이노베이션 데이에는 국내외 전문가, 기업가, 벤처투자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들은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아시아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기업가정신 생태계 조성에 대해

각자의 시각을 공유하였습니다. 패널세션에서 소훈섭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소장은 인구 고령화 및 감소 추세에서 한국과 같은 상황에 놓인 국가들은 여성 노동자를 비롯한 양질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IFC-MIGA-한국수출입은행-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공동 워크숍 (2019년 2월)

2019년 2월 20일 IFC는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함께 신흥시장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신흥시장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전략 및 자금조달 기구에 대해서는 4개 기관이 각자 발표를 하고, 시황 업데이트와 주요 중점 부문, 한국 출자사들이 조사한 주요 신흥시장 내 최신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동 발표를 하였습니다. 워크숍에는 신흥시장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한국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IFC는 세계은행그룹 개발금융 조달(Mobilizing Finance for Development) 이니셔티브 달성을 위해 한국 출자사 및 투자자들의 신흥시장 프로젝트 개발 및 참여를 지속적으로 촉진할 계획입니다.

IFC와 디캠프, 청년 기업가를 위한 디데이 공동 주최 (2019년 3월 20일)

IFC와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D.CAMP)가 공동 주최한 디데이(스타트업들이 사업모델을 발표하면 이를 평가해서 공유 오피스에 입주하거나 투자를 받을 우승자를 선정하는 월례 행사)에서는 창의성과 경쟁력을 가진 한국 스타트업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발표를 통해 실시간으로 난제를 해결하면서 신흥시장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박준영 IFC 한국사무소 전임 대표(현 남아시아 금융기관그룹 포트폴리오 대표, IFC regional portfolio manager for financial institutions group(FIG) from Mumbai)는 "디캠프는 한국 스타트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IFC는 이들의 신흥시장 진출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교육, 헬스케어, 금융, 농업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9개 스타트업이 자금조달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전문가 패널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 4차 IFC 이노베이션 데이: 한국 핀테크의 아시아 진출 모색 (2019년 11월 11일)

IFC 한국사무소가 주최한 제 4차 IFC 이노베이션 데이는 '한국 핀테크의 아시아 진출 모색(Connecting Korean Fintechs with Asia)'을 주제로 금융산업의 급격한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한국 핀테크 업체들이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포럼에는 국내외 핀테크 전문가와 기업가, 금융기관, 씽크탱크, 정부측 대표와 함께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4개의 포트폴리오 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IFC에서는 싱가포르 사무소의 로지 카나(Rosy Khanna) IFC 아태금융기관 총괄(IFC Regional Industry Director for Financial Institutions Group, FIG based in Singapore)와 베이징 사무소의 랜달 리오펠(Randall Riopelle) IFC 동북아시아 총괄(IFC country manager for China, Mongolia and Korea), 박준영 남아시아 금융기관그룹 포트폴리오 대표가 참가하여 금융산업과 핀테크 부문에 대한 IFC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에서는 최유진 FCI GP 금융 담당관이 세계은행그룹 핀덱스 보고서(Findex Report)에 나온 아시아 금융 포용성 격차에 대해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소훈섭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장은 한국 핀테크 진흥을 위한 패널토론 좌장을 맡았고, 사미르 고알 서울금융자문센터장(Program Manager for Seoul Center for Financial Sector Development)은 패널로 참여하여 세계은행은 개도국에서 금융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지원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MDB 프로젝트 플라자 2019 (November 25, 2019년 11월 25일)



2019년 11월 25일 KOTRA는 부산에서 'MDB 프로젝트 플라자(Project Plaza) 2019'를 개최하였습니다. 5개 MDB와 한국수출입은행, 아세안 국가 프로젝트 담당자 25명, 50개 한국 기업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류지연 IFC 한국사무소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MDB를 통한 인프라 개발을 설명하며, 성숙 단계에 돌입한 국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지적하고 성장세에 돌입한 아세안 경제에서의 기회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증개(Private Sector Window, PSW) 프로그램 등 IFC가 제공하는 가치창출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민간투자를 모집하고 PSW 수혜국에서 시장을 창출하는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표 6. IFC 한국사무소의 대외 지원 및 참여 활동

행사명	주최/주관	설명
한국수력원자력 글로벌 전략 세미나 (2018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	IFC에 대한 개괄적 정보를 전달하고 지원 금융도구 및 진행 중인 한국 사업 발표
AVCJ 사모 & 벤처 포럼 - 한국 (2018년 9월)	AVCJ	IFC 한국사무소가 포럼에 참가하여 해외 투자를 고려 중인 한국 기관투자자들과 네트워킹 활성화
워터비즈니스포럼 (2018년 9월)	외교통상부	개도국 수자원 프로젝트(위생, 하수, 관련 인프라 등)와 관련해서 IFC-한국 투자사 공동출자 모델 발표
디파트: 글로벌 커넥션 (2018년 9월)	디캠프	IFC 대표가 참석하여 IFC를 소개하고 벤처투자 지부(VC arm)의 투자 활동 및 우선 전략 설명
IFC 이노베이션 데이 (2018년 10월)	IFC	IFC 한국사무소가 제 3차 IFC 이노베이션 데이 '미래 일자리' 주최
GCF 민간투자 컨퍼런스 (2018년 10월)	GCF	IFC 최고투자책임자(Chief Investment Officer)와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신흥시장에서의 기후 투자 논의

행사명	주최/주관	설명
스타트업을 만나다 (Startups meet Grownups) (2018년 10월)	한국무역협회, 독일 상공회의소	IFC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함께 IFC 벤처투자 사업부(VC arm)의 투자 활동 및 전략적 주력 분야 설명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2018년 11월)	기획재정부	설명회 기간 동안 IFC 선임 인적자원사업 파트너 (senior human resources business partner)가 IFC 소개를 하고 채용 후보자들과 면접 진행
KOTRA MDB 플라자 컨퍼런스 (2018년 11월)	KOTRA	IFC 인프라자원 아태 국장(Infrastructure and National Resources Asia and the Pacific director)이 기조연설을 하고, IFC 한국사무소가 세미나에 참여해 한국의 잠재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개발도상·신흥 시장 프로젝트에 관해 1:1 상담 진행
헤이그라운드 임팩트 투자 연설 (2018년 11월)	루트임팩트	IFC 대표가 임팩트 투자에 대해 발표
해외항만개발 컨퍼런스 (Overseas Port Development Conference) (2018년 11월)	해양수산부	IFC 대표가 참석해 신흥시장의 항만 인프라 개발 및 IFC 투자 지원 설명
한국 기관투자자 오찬 라운드테이블 (2018년 11월)	IFC	IFC 한국사무소와 IFC AMC가 한국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LP 투자자의 IFC AMC 펀드 참여 기회를 설명하는 오찬 라운드테이블 주최
아세안 연계성 포럼(ASEAN Connectivity Forum) (2018년 11월)	한-아세안 센터	IFC 대표가 패널토론 세션 좌장을 맡음
한국 기업 지배구조 (2018년 11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IFC 대표가 패널로 참여
IFC-MIGA-한국수출입은행-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공동 워크숍 (2019년 2월)	IFC, MIG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IFC, MIG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대표들이 한국 인프라 출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출자기구 및 전략적 우선순위, 주요 신흥시장 전망 결과 소개
디데이 X IFC (2019년 3월)	IFC, 디캠프	IFC-디캠프 공동 주최 데모데이에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사업 및 해외진출 계획 발표

행사명	주최/주관	설명
부산 국제금융 컨퍼런스 (2019년 5월)	세계경제연구원(한국)	IFC 아태 지역 국장(Regional Director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이 기조연설
FCV 라운드테이블 (2019년 5월)	IFC	IFC가 FCV 국가에서 활동 중이거나 기회를 타진해본 한국 출자사(sponsors)들을 초청해서 세계은행그룹 FCV팀과의 라운드테이블 주최
방글라데시 인프라 투자 진흥 회의(Bangladesh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motion Conference) (2019년 7월)	한국수출입은행	수딕타 후세인(Sudipta Husain) 남아시아 INR팀 투자담당관(Investment Officer with South Asia INR team)이 IFC 대표로 'IFC가 바라본 인프라 파이낸싱 (Infrastructure Financing: IFC Perspective)'을 발표하고 한국 출자사들과 1:1 회의에 참여
디캠프 IFC 2019 위켄드 (2019년 10월)	디캠프	IFC가 벤처 및 스타트업 투자 활동, 전략적 중점 영역에 대해 발표
GCF 민간투자 기후 컨퍼런스 (2019년 10월)	GCF	IFC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신흥시장에서의 녹색 기후 투자 논의
IFC 이노베이션 데이 (2019년 11월)	IFC	IFC 한국사무소에서 주최한 제 4차 IFC 이노베이션 데이. 주제는 '한국 핀테크의 아시아 진출 모색'
2019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2019년 11월)	기획재정부	채용설명회 기간 동안 IFC 대표와 선임 인적자원사업 파트너(Senior Human Resources Business Partner)가 IFC를 소개하고 유력 채용 후보들을 만나 면접 진행
MDB 프로젝트 플라자 2019 포럼 (2019년 11월)	KOTRA	IFC 대표가 'MDB와의 인프라 개발(Infrastructure with MDBs)'에 대해 기조연설

참조: AVCJ = 아시아벤처캐피탈저널(Asia Venture Capital Journal); AMC = 자산운용사(Asset Management Company); ASEAN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FCV = 취약·분쟁·폭력(fragility, conflict, and violence); KOTR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GCF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IFC =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MDB =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IGA =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한국사무소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팀은 신흥시장 투자에 대해 보증을 제공해 투자 위험을 줄이고 신용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한국의 신흥시장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MIGA 아시아 역내 허브 중 하나인 MIGA 한국사무소에서도 인도, 몽골, 네팔, 파키스탄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의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사들이 참여하는 네팔과 솔로몬 제도의 수력발전소, 미얀마 산업공단 등은 MIGA 한국사무소가 워싱턴 본사 거래팀(deal team)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발전시킨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었던 이들 프로젝트는 2020회계연도 말에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IGA는 동아태, 남아시아, 중남미, 카리브해 역내 전력 및 인프라 부문에서도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여러 투자자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리슈리 상류-1 수력발전 프로젝트 (네팔, 8,740만 달러)

2019년 12월 MIGA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70km가량 떨어진 트리슈리 강에 216MW급 수로식(run-of-the-river) 수력발전 개발·건설·운영·유지를 위해 8,740만 달러의 지급보증을 발행하였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보유한 네팔 수자원개발회사(Nepal Water and Energy Development Company, NWEDC) 지분을 계약 위반 위험으로부터 최대 15년간 보호하는 지급보증입니다. 2015년 진도 7.9의 네팔 대지진으로 프로젝트 부지와 주변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도 한국남동발전은 다른 한국 투자사들과 함께 7년 이상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아 프로젝트에 대한 놀라운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메를리 바루디 경제·지속가능성 국장 방한 (2019년 10월 6-8일)

메를리 바루디(Merli Baroudi) MIGA 경제·지속가능성 국장(Director for Economics and Sustainability)이 인천에서 열린 GCF 민간투자 기후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2019년 10월 6-8일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후 대응 인프라를 통한 리스크 완화 및 시장 장벽 극복(Climate-Resilient Infrastructure: De-risking and Overcoming Market Barriers)' 세션에서 바루디 국장은 MIGA가 각국 정부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기후변화 적응과 회복력을 증진한 모범 사례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비제이 아이어 부총재 겸 최고운영책임자의 방한 (2019년 7월 21-23일)

비제이 아이어(S. Vijay Iyer) MIGA 부총재 겸 최고운영 책임자(Vice President and Chief Operating Officer)가 2019년 7월 21-23일 방한하였습니다. 아이어 부총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비롯한 국내 공기업과 사기업을 두루 만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 기회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표 7. 다자간 투자보증기구 한국사무소 대외 지원 및 참여 활동

행사명	주최/주관	설명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MIGA의 투자상품 및 최근 프로젝트 발표
MDB 프로젝트 플라자 2018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KOTRA	한국 기업과 1:1 세션 진행
한국수출입은행 금융기관 세미나	한국수출입은행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전략 일환으로 MIGA 투자상품 소개
한국수출입은행 공동 워크숍	한국수출입은행, IFC, MIGA,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MIGA 투자상품과 이를 활용한 한국 투자자들의 가치창출 전략 발표
KOTRA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2019	KOTRA	취약 및 갈등 피해국을 위한 MIGA 지원 활동 설명
한국해외인프라도시 개발지원공사 1주년 행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 개발지원공사	한국의 해외투자 증진을 위한 패널 토론 진행

참조: IFC =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KOTR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MDB =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IGA =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Korea Office

37F. Boo Young Songdo Tower 2, 241 Incheon Towerdaero, Yeonsu-gu, Incheon, Korea
+82-32-713-7000
webkorea@worldbank.org
worldbank.org/korea

Seoul Satellite Office (IFC & MIGA)

Seoul Global Center, Seorin-dong 64-1, Jongno-gu, Seoul, Korea
+82-2-6975-3000
ifc.org/korea
ifckorea@ifc.org

Hoon Sahib Soh

Special Representative
(Country Manager)

COUNTRY MANAGEMENT UNIT

Jiwon Lee | Operations Officer
Min Jae Kang | Executive Assistant
Bojeong Choi | Team Assistant
Soyoun Jun | Team Assistant
Jessie Eunyeong Choi | Administrative Assistant
Samran Choi | Administrative Assistant
Byung Gwan Kim | Administrative Assistant
Minkyung Kim | Consultant
Soo Yeon Lim | Consultant
Morana Song | Communications Consultant

FCI

Sameer Goyal | Program Manager
Kyung Kyun Park | Senior Financial Sector Specialist
Youjin Choi | Financial Sector Specialist
Ryosun Jang | Consultant

FCV

Dawoon Donna Chung | Senior Program Officer
Suh Yoon Kang | Operations Officer

EDUCATION

Hayeon Kim | Education Consultant

IFC

Jiyeon (Janice) Ryu | Resident Representative
Liz (Liseul) You | Investment Officer
Jaejin Lee | Investment Officer
Han Jae Lee | Investment Analyst
Haejin Allison Chun | Program Assistant
Ashley Nam | Communications Consultant

GREEN GROWTH INNOVATION

Inchul Hwang | Senior Energy Specialist
Kathrine Kelm | Senior Land Administration Specialist
Maurice Andres Rawlins |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Specialist
Hanul Oh | Operations Analyst
Bola Ju | Land and Geospatial Consultant
Eunji Shin | Environmental Consultant

KPOK

Jisun Kim | Senior Program Coordinator
Jung Yoon Heo | Administrative Assistant
Sun Young Park | Program Assistant
Hye-Jung Hwang | Consultant

MIGA

Jae Hyung Kwon | Representative, Head of North Asia



WORLD BANK GROUP
KOREA OFFICE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41 부영송도타워 2 37층
T. +82 (0)32 713 7000 E. webkorea@worldbank.org
www.worldbank.org/korea
www.worldbank.org

